

한국과학기술의 맥 ③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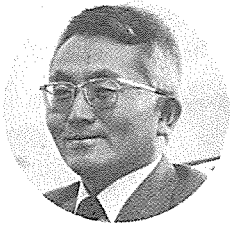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의 날>은 다시 4월 19일로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지금 우리들이 <과학의 날>로 잡고 있는 4월 21일은 과학기술처의 출범 날자를 기념해서 잡은 날이다. 과학기술처는 1967년 4월 21일 간판을 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저런 기념일도 많지만 정부기관의 탄생을 축하하여 기념일을 만들어 놓은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우리 역사에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념할 만한 날이 전에 아주 없었다면 과학기술처의 출범을 기념해서 나뉘까닭도 없을 터이다.

66

제1회 「과학데이」는 1943년 4월 19일

99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 교수·科學史〉

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과학의 날>로 아주 적당한 날이 이미 있었고, 실제로 50여년 전의 우리 민족지도층은 과학기술의 진흥만이 민족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해서 <과학데이>를 4월 19일로 정해 기념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벌인 적이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과학의 날>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새로 <과학의 날>을 정한 것이지만, 이제 이런 역사를 알게된 바에는 마땅히 우리 <과학의 날>은 바로 잡아 놓아야만 민족사의 정통성은 면면히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좀 더 뿌리있는 과학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금년은 잃었던 설날을 다시 찾은 해이며, 또 그동안 근로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 했던 것도 내년에는 5월 1일로 바꿔 노동절을 기념할 것이라 알려졌다. 우리 과학계도 당연히 잃었던 <과학의 날>을 되찾아 기념할 일이 아닌가?

제1회 <과학데이>는 1934년 4월 19일로 정해져 실시되었다. 이 행사를 위한 모임은 1934년 2월 28일 오후 5시반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의 참석자는 31명이었고, 변호사 李仁이 개회사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발명학회 이사이며 <과학조선>의 발행인이었던 金容璫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것이 채택되어 <과학데이> 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 행사의 목표는 처음부터 “전사회적으로 자연과학 지식열을 고취 앙양함”에 있었다. 이들은 이 목적을 위해 강연회, 라디오 계몽강연, 환등·활동 사진회, 견학단 파견, 실험회등을 하기로 정하고 이 행사의 실행을 위한 ‘과학데이실행회’를 구성했다. 이 실행회에는 당시 조선의 지식층 지도층이 거의 다 망라된 듯한 모습이었다. 발명학회 이사장이었던 이인은 물론 윤치호, 송진우, 방응모, 이종린, 여운형, 유광렬, 주요한, 김성수, 김병로, 현상윤, 최규동, 김창제, 조동식, 김활란 등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모임은 3월 8일 서울 청진동에 있던 이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여운형이 주도하여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실제 행사를 진행할 상무위원회는 3월 12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행사를 구체화해 갔다.

특히 3월 8일의 모임에서는 김용관이 <과학데이>로 다윈의 기일인 4월 19일을 제안하여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고, 실행위원 37명은 각자 5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자는것도 결정했다.

제1회 <과학데이>는 1934년 4월 19일로 정해져 실시되었다. 이 행사를 위한 모임은 1934년 2월 28일 오후 5시반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의 참석자는 31명.

특히 3월 8일의 모임에서는 김용관이 <과학데이>로 다윈의 기일인 4월 19일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실행위원 37명은 각자 5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자는 것도 결정했다.

진화론으로 당시 너무나 유명하던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은 1809년 2월 12일에 태어나 1882년 4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19세기 말부터 진화론에 근거를 둔 사회 사상은 크게 동양 삼국에 영향을 미쳐 그의 이름은 어린 아이들까지 잘 알 정도로 유명해진 상태였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란 말이 그야말로 일세를 풍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윈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 여겨지던 그런 때였다.

1932년 4월 19일이 그가 죽은지 5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때의 지식층에게는 그날이 가장 그럴듯한 <과학데이>로 생각났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또 5원이라는 경비는 지금으로 얼마 쯤 될런지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10만원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단순 비교로는 당시 <과학조선>이란 잡지가 한 권에 15전이었고, 두터운 책값은 50전이상이었으며, <과학조선>의 한 페이지 광고료가 20원에서 40원까지 3등급으로 돼 있었다.

요컨대, 1934년의 제1회 <과학데이> 행사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규모로 실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계획 대로 몇일 동안 라디오 방송과 강연회, 활동사진회, 견학회가 벌어졌고,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등은 몇일 동안 사설과 기사를 냈고, 또 각 신문은 포스터를 만들어 각지에까지 배포 했다. 이 포스터에는 <과학데이> 표어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 “과학 조선의 기초를 굳게 닦자.”
- “과학 조선의 건설을 목표로!”
- “한개의 시험관은 전세계를 뒤집는다.”
- “과학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 “과학의 황무지인 조선을 개척하자.”
- “과학의 대중화 운동을 촉진하자.”

“과학은 힘이다. 배우고 응용하자.”

첫 <과학데이>행사를 계기로 과학보급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후 1년 동안에는 과학지식보급회가 따로 구성되어 이 기관이 앞으로의 <과학데이>행사를 맡기로 되었고, 서울 이외에도 평양, 신천, 원산, 김천 등에 지회가 생겼다. 6월 7일 정식으로 구성된 과학지식보급회는 윤치호를 회장으로, 이인을 부회장으로 하고 조만식, 여운형, 송진우, 방응모, 김성수등 10명을 고문으로 구성되었다. 과학지식보급회는 발명학회, 조선일보 학예부등의 협조를 얻어 서울과 지방 지회에서 강연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배경으로 열린 1935년의 제2회 <과학데이>행사는 더 떠벌어진 것 이었고, 서울만이 아니라 평양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열렸다. 서울에서는 전년과 같은 행사 외에도 표어와 포스터를 달고 깃발을 날리며 54대의 자동차가 서울 시내를 도는 자동차 행렬도 있었다. 아마 당시 서울의 자동차는 거의 동원된 행사였을 것이다. 동아일보사 앞을 떠난 행렬은 군악대가 ‘과학의 노래’를 연주하는 뒤를 따라서 시내를 한바퀴 돈 다음 견지동의 조선중앙일보사 앞에서 해산했다. 또 4월 19일 저녁 8시에 종로의 기독교청년회관 강당에서 식이 열리고 이어 강연회가 열렸는데, 경성보육학교 합창단이 피아노 반주에 따라 ‘과학의 노래’를 불렀다.

이 해에 준비한 ‘과학의 노래’는 김억(안서) 작사, 홍난파 작곡으로 악보는 <과학조선> 1935년 6월호에 실려 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 (1) 새 못되어 저 하늘 날지 못노라
 그 옛날에 우리는 탄식했으나
 프로페라 요란히 도는 오늘날
 우리들은 맘대로 하늘을 나네

첫 <과학데이>행사를 계기로 과학보급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후 1년 동안에는 과학지식보급회가 따로 구성되어 이 기관이 앞으로의 <과학데이>행사를 맡기로 되었다.

특히 1938년에는 아예 이 운동을 주동하던 김용관이 투옥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일제는 <과학데이>를 폐지하고 일본인들이 지켜가던 비슷한 기일인 5월 10로 통폐합해 버리고 말았다.

(후렴) 과학, 과학 네 힘의 높고 큼이여
 간데마다 진리를 캐고야 마네

- (2) 적은 몸에 공간은 넘우도 넓고
 이 목숨에 시간은 끝없다하나
 동서남북 상하를 전파가 돌며
 새 기별을 낫낫이 알려주거니
 (3) 두다리라 부시라 헛된 미신을
 이날 와서 그 뉘가 미들 것이라
 아름답은 과학의 새론 탐구에
 불지어다 세계는 맑아지거니

그러나 일제의 날카로운 눈이 이 과학운동의 핵심을 놓칠리는 없는 일이었다. 분명히 그것은 민족의 과학기술능력을 길러감으로써 민족적 잠재력을 기르려는 장기적인 독립운동 그것 이었던 때문이다. 1935년의 행사를 정점으로 <과학데이>는 어려워 지기 시작했고, 특히 1938년에는 아예 이 운동을 주동하던 김용관이 투옥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일제는 <과학데이>를 폐지하고 일본인들이 지켜가던 비슷한 기일인 5월 10일로 통폐합해 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찰스 다윈의 기일을 기념하여 우리 <과학의 날>을 4월 19일로 바꿀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반 세기전에 온갖 서러움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구국의 꿈을 키워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이어 받는 일이야말로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과학의 날>에는 그 날자를 반 세기 전 처럼 4월 19일로 바꾸고, 54년 만에 김만서 작사, 홍난파 작곡의 <과학의 노래>가 그 기념식에서 울려 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된다. 가능만하다면 과학기술에게도 더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주 필요하다는 말이다.